

새로 나온 책

꿀통·관심 종자 넘쳐나는 SNS 탈출하라

“왜 SNS에는 ‘꿀통’과 ‘관심 종자’들이 넘쳐나는 걸까?”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고안하고 상용화한 컴퓨터 과학자 재런 러니어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우리의 ‘행동수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행동수정이란 보상과 벌칙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법으로 주로 행동심리학 실험이나 중독 치료에 사용된다.

실리콘밸리의 내부 고발자인 러니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버머(Bummer)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를 조정하는 ‘행동수정의 제국’이라고 꼬집는다. 버머 알고리즘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클릭 수와 참여 수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보정한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어떤 설정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지를 분석,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설정 값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사람들을 SNS의 늪에 빠뜨린다.

버머는 일종의 물물교환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사람들은 무료로 자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재런 러니어 지음/신동숙 옮김/글항아리

료를 검색하고,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본다.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종당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SNS 사용을 중단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사고하는 미래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24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비엣 타인 응우옌 지음/부희영 옮김/더봄



모든 전쟁은 두 번 치러진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두 번째는 기억 속에서. 어떤 전쟁은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고 베트남인들은 ‘미국 전쟁’이라고 부른다. 포성은 오래 전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소설과 회고록, 영화, 사진을 보면 두 나라의 갈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화적 형식을 만화경처럼 들여다본다. “전쟁이 끝나도, 기억 속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440쪽. 2만2000원.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강주현 옮김/김영사



미래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한국인에게 ‘총, 균, 쇠’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위기, 선택, 변화로 달라지는 미래를 제시한다. 책은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하고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한다. 국가 간 불평등, 환경 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핵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후 세계의 전망과 과제를 냉철하게 파헤친다. 600쪽. 2만4800원.

아들러 삶의 의미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최호영 옮김/윌유문화사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 ‘개인심리학’을 정립한 심리학계 거장 아들러는 책에서 공동체 감정을 삶의 과제로 꼽는다. 개인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 열등감, 고독감, 우울증, 신경증, 정신병, 중독이나 범죄 같은 문제는 공동체 감정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개인이 보이는 부적응 현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이 부딪히는 저항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334쪽. 1만5000원.

양평 SK가스 충전소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2호점 오픈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모델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SK충전소 스마트 편의점 2호점을 오픈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SK가스와 스마트 편의점 오픈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휴하고 지난 2월 광고SK충전소점을 오픈한데 이어 3개월만에 양평 SK충전소(서울 양평동 소재)를 추가로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양평SK충전소점은 고객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광고SK충전소점보다 시식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대한 카페형 스마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양평SK충전소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양평SK충전소점’은 약 30평 규모이며, 유·무인 결제가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한 듀얼POS를 중심으로 시그니처 모델의 핵심 IT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흥은동서 즐기는 ‘유럽’ 옥토버페스트서 바베큐 파티

내게 맞는 호텔 찾기

그랜드 힐튼 서울

‘독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시지와 맥주다.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를 만들어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통 독일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위치한 그랜드 힐튼 서울이 바로 그곳이다.

독일 옥토버페스트, 생생하게 즐기자

그랜드 힐튼 서울은 매년 가을마다 독일 뮌헨의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그대로 재현한 ‘그랜드 힐튼 서울 옥토버페스트’를 실시한다.

독일 뮌헨 옥토버페스트는 1810년부터 개최된 것에 비해, 그랜드 힐튼 서울의 옥토버페스트는 이 호텔 총지배인 번하드 브렌더(Bernhard Brendler)가 총지배인으로 승직 직후인 2007년부터 시작했다. 그는 독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이식해 매년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지하는 그랜드 힐튼 서울의 흥행 수표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독일 프라부르크 출신인 브렌더 총지배인은 동서양의 유명 호텔에서 54년의 경력을 쌓은 호텔업계의 베테랑으로 국내 최장수 호텔 총지배인이기도 하다. 1965년 독일의 한 호텔의 셰프로서 호텔리어 길에 입문해 지금까지 4대륙 10개국 호텔에서 다양한 문화와 맛을 체험했다. 그는 1991년 워커힐 호텔로 이직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랜드 힐튼 서울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 호텔의 셰프 출신인 그가 지휘하기에 축제의 현장감은 남다르다. 독일식 족발 요리 ‘슈바인 학세’와 부드러운 고기 요리인 ‘미트 로프’를 비롯해 페타치즈 비트 샐러드, 홈메이드 콜드 컷 플레이트, 프레첼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독일 정통 소시지는 특히 기대해도 좋다.

여기에 독일 현지에서 초청한 밴드의 흥겨운 라이브 공연, 독일 전통 의상을 입고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들, 독일 뮌헨과 동일한 장식과 맥주 빨리 마시기, 못박기, 팔씨름 등 다양한 게임은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독일행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브렌더 총지배인은 “독일에서 가장 큰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한국인들에

게도 소개하고 싶었다”며 “내가 아는 한국인은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을 공유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소정의 매개체는 바로 술”이라고 말했다.

가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그랜드 힐튼 서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금, 토, 일 주말과 공휴일 저녁마다 ‘그랜드 힐튼 바베큐’를 진행한다. 가을이 오기 전,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호텔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뷔페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그랜드 힐튼 바베큐’는 기존 뷔페 메뉴에 셰프들이 직접 참숯에 구운 몽골리안 바비큐, 소갈비, 양갈비 등 최상급 품질의 육류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특히 그랜드 힐튼 서울의 대표 메뉴인 ‘몽골리안 바비큐’는 몽골 전사들의 빠른 식사와 고단백질 섭취를 위해 개발된 몽골의 철판 요리로, 고객이 직접 다양한 채소와 고기, 해산물 등을 골라 셰프에게 전달하면 즉석에서 요리해준다.

▶그랜드 힐튼 바비큐 현장.

▼번하드 브렌더 그랜드 힐튼 서울 총지배인. /그랜드 힐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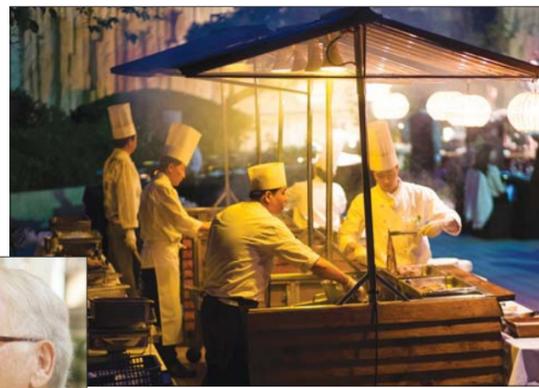
동안 전수 받은 레시피를 바탕으로 프랑스, 멕시코, 이도 등 각국의 컨셉에 맞춰 세계 미식 테마를 운영해왔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옥토버페스트’ 뿐만 아니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전세계 각국의 맛을 탐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드 힐튼 서울, 왜 익숙할까?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그랜드 힐튼 서울. 이곳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 호텔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은 2013년 남북 당국회담 장소였다. 2000년대 열린 18차례 남북 회담 가운데 무려 8차례가 이곳에서 열렸다. 또한, FIFA 특별총회, WB C 패더급 세계 타이틀 2차 방어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행사 등 굵직한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01년 국내 호텔 최초로 오픈한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있다. 이곳은 대지면적 2500평에 지상 4층, 지하 3층으로 이뤄져 서울 강북권



에서는 일산 컨텍스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주중에는 기업 행사로 분주한 이곳이 주말이면 결혼식과 가족연 등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변신한다. 도심에서 보기 드물게 수려한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데다, 다양한 콘셉트의 웨딩홀까지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브렌더 총지배인은 “그랜드 힐튼 서울은 특화된 컨벤션 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유수의 국내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 진행해 왔다. 다년간 호흡을 맞추며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원들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다양한 성격의 기업행사, 학술대회, 각종 세미나는 물론 각종 모임, 가족연, 웨딩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사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며, 향후 재방문 고객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